

社說

세계가 AI·반도체 전쟁인데 부족한 우리 인재는 그나마 해외로

인공지능(AI) 및 AI 반도체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부족한 우리 인재를 그나마 해외로... AI 고급 인력뿐만이 아니다. 미국, 일본, 유럽 등이 반도체 생산 기지를 늘리고 AI 반도체 개발에도 뛰어드는 바람에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국내 반도체 업체조차 고급 인력 채용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

·LG·KT 등 국내 대기업 10곳 중 9곳이 석·박사 이상 '고급 인력'을 채용하는 게 '어렵다' 혹은 '매우 어렵다'고 답하고 있다. 대학 내에서 학과별 정원 조정이라도 가능해야 하는데 교수들의 반대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민주당 종부세 상속세 개편 입장은 빈말이었나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제기했던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세 개편 논의가 후회 조짐을 보이고 있다. 총선 직후 박찬대 원내대표는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고 했고 고민정 최고위원도 비슷한 취지의 언급을 했었다.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세수 결손이 심각하고 재정 상태가 엉망인데 정부가 감세를 꺼내 들었다" "정말 국가를 책임지고 운영하는 사람들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런 질문은 민주당 내부를 향해 먼저 해야 할 것이다.

선진국보다 터무니없이 비싼 식료품과 서울 집값

한국은행이 우리와 선진국의 물가 수준을 비교한 결과, 식료품 물가가 선진국 평균보다 56%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비도 23% 비쌌다. 반면 전기·가스·수도 요금은 선진국 평균보다 36% 저렴했다.

값 탓에 2030세대가 주로 거주하는 서울 신축 빌라의 경우 평균 월세가 101만원까지 치솟아 청년들이 월 소득의 30% 이상을 주거비로 지출하고 있다. 문제는 식료품, 주거비, 공공요금의 선진국 대비 가격 격차가 갈수록 더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입법독주 민주당이 맞게 될 미래



태평로

김태훈

논설위원

미국 4대 대통령 제임스 매디슨은 건국의 아버지들과 공저한 책 '연방주의자'에서 '입법권 남용이야말로 우리 정부가 당면한 가장 위험한 질병'이라는 말로 다수의 입법 폭주를 경고했다.

주의 태동기 때 이미 있었다.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고향은 그리스 북부의 스타게이이다. 그곳 사람들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문헌 곳곳에 '아리스토텔레이온'이라 명명하고 민주주의의 전당으로 삼았다.

다수결 앞세워 입법 폭주하지만 더 중요한 건 반대당과의 대화 독주하면 개발만 환호할 뿐 국민적 신뢰 얻을 수 없어

프랑스 정치 철학자 알렉시 드 토크빌이 저서 '미국의 민주주의'에서 지적했던 것도 민주주의에 내재한 다수결의 결함이었다. '다수의 권력이 절대적이라는 것은 불변의 사실인 반면, 그것이 올바르게 행사된다는 것은 우연'이라고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7년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급등 대책을 발표하며 "더 강력한 대책이 주머니 속에 많이 있다"고 했을 때 의아했다.

그때 야당과 전문가 목소리를 입법에 반영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다. 어쩌면 정권을 내놓는 일도 없었을지 모른다.

김준의 맛과 성 195

보령 밴댕이조림



손님으로 가득 찬 술시, 보령시 골목 안쪽엔 작은 식당이 소란스럽다. '상추 좀 더 주세요' 단골인 듯한 손님이 목소리가 제일 크다.

까지 알려준다. 밴댕이를 살펴보니 어류도감에 '반지'라고 소개된 바닷물고기다. 보령, 강화 등 서해 곳곳에서는 밴댕이라 부른다.

루에 네 번 그물을 던다. 그물에는 원하는 밴댕이만 드는 것이 아니다. 유월이 황석어, 병어, 웅어, 새우, 전어, 숭어, 서대, 낙지 등도 함께 들어온다. 그중에서 값이 좋은 생선만 썰어 판대한다.

이재명, 집권 술책 급변경 중 이재명·문재인·조국 위에 백낙청·함세웅? 다시 그 위 누구? [3년 후 권력 장악] → [윤석열 조기 끌어내리기] [촛불난동 → 박근혜탄핵 → 조기대선 → 문재인등극]과 동일 수법 [국힘 변질파+비파파 언론] 부역 연합, 재등장? [평양것들] 수작 변경과 관련? 3년은 너무 길어 [이재명의 전략이 급속히 바뀌고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